



종축개량誌



조용환 편집상무
축산신문

올해는 홀스타인품평회가 전국규모 또는 광역단체와 시·군 단위에서 풍성하게 열린다.

지난 4월 26일 안성에서 「제6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가 성황리 열린데 이어 한국종축개량협회·한국낙농경영인회는 오는 10월 10일·11일 양일동안 전국규모 「2007년도 한국홀스타인품평회」를 안성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 대회는 리딩콘테스트 부문을 신설, 15개 부문으로 늘리는 동시 출품우도 2백30두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광역단체와 시·군 지자체에서도 지역대회를 속속 개최한다. 충북산유능력검정협회의회와 충북낙협은 오는 9월 18일 「제1회 충북 홀스타인대회」를 개최한다. 50여 농가의 젖소 60두를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출품하는데 따른 예산은 충북도와 충북낙협에서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지원받고, 초과 예산은 농가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종축개량협회 김병숙팀장이 맡는다.

경북도와 경북대구축협도 오는 10월 6일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제1회 경북 홀스타인품평회」를 개최한다. 경북도대회도 충북도처럼 처음 개최하는 만큼 5개 부문에 50두를 출품한다. 관련된 예산은 경북도와 경북대구낙협에서 각각 보조받는 4천만원·2천5백만원과 자담 등을 포함, 7천~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K추진위원은 추정했다.

포천시와 포천축협·포천홀스타인검정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회 포천홀스타인품평회」는 오는 9월 10일 이동면 노곡리 소재 젖소살내 품평회장 건립예정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천검정연합회도 6월 중순경 관내 읍·면단위 9개검정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제2회 이천홀스타인품평회」개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고양지역 낙농가들은 9월 29일 호수공원 실내전시관에서 「제1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한국 낙농산업의 현실을 직 간접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동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다. 따라서 국내 낙농산업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키 위해서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를 미국 데어리엑스포·영국 로얄쇼·일본 홀스타인공진회 등 선진국의 홀스타인품평회에 버금가는 행사로 발돋움 토록 우선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겠다.

회 고양홀스타인품평회」를 개최기로 했다. 44농가의 젖소 60두를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출품될 고양품평회는 지자체에서 3천만원을 보조 받는다.

이처럼 올해는 지역 홀스타인품평회까지 활성화되어 출품을 준비하는 검정농가들은 상위 입상을 위해 털깎기·순치요령과 최신정보 입수에 열의가 대단하다. 특히 국제적인 안목을 겸비하기 위해 해외 선진연수까지 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지난 4월 열린 제6회 서울우유 홀스타인경진대회에서 우수축 이상 상위 입상한 축주 39명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에서 열린 「블랙앤 화이트쇼(B/W쇼)」를 참관시켰다.

이밖에 B/W쇼에는 양주검정회 회원 13명이 5월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설성영 농조합법인소속 낙농주부 30명이 5월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이천검정연합회 회원 59명도 5월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각각 참관했다.

또 이천TMR회는 지난 5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북해도 선진낙농목장에서 1차 연수(47명)를 한데 이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같은 지역에서 2차 연수(45명)중이다.

서울우유 헬퍼사업회는 5월 28일부터 6월6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유럽지역에서 부부동반(30

명) 낙농연수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는 것은 많은 지역대회에서 입상할 우수축들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어서 뜨거운 경합이 예상된다.

어쨌든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한국 낙농산업의 현실을 직 간접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동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다. 따라서 국내 낙농산업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키 위해서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를 미국 데어리엑스포·영국 로얄쇼·일본 홀스타인공진회 등 선진국의 홀스타인품평회에 버금가는 행사로 발돋움 토록 우선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행사 개최에 따른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확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낙농가들의 낙농여건은 선진국의 낙농가들에 비해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이다.